

# 李中梓의 陰陽思想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高泳商 · 金容辰\*

## 對於李中梓的陰陽思想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高泳商 · 金容辰

內經在以“人身爲小宇宙”的思想基礎上，認爲陰陽的要點在於其爲‘天地之道’，爲‘萬物之綱紀’，爲‘變化之父母’，爲‘生殺之本始’，陰陽之間當維持正常的相互影響·相互制約·相互依存的協調關係，從而立足於自然界的事物現象對陰陽的本質，變化以及在人體生理病理等方面的一般情況給予了說明。

李中梓對『內經』的註釋，較張景嶽更加簡潔，令後世更加便於理解，對臨床活用亦有諸多啟示。

可以看出，李中梓認爲水火陰陽是以陽氣做爲主導而循環不已的，且是人體生命的根本，故疾病的預防當以此爲要點。

Key Words: 李中梓, 內經, 陰陽思想.

## I. 序 論

『內經』에 대한 역대연구는 南北朝時期 全元起의 『素問訓解』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이후 隨代 楊上善의 『太素』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현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것은 張景岳의 『類經』이라고 할 수 있다. 張景岳이후 많은 주석가들은 『類經』의 내용과 형식을 본받은 바탕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李中梓는 이전의 『內經』註釋이 너무 많아 공부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생각하여 『內經』의 主要內容을 道生, 陰陽, 色診, 脈診, 臟象, 經絡, 治則, 病能의 八部分으로 분류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수록된 원문은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簡明하고 자신의 임상적 경험과 기초이론을 서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며, 문체

또한 쉽게 써서 읽기에 편리하도록 한 『內經知要』를 저술하였다<sup>1)</sup>.

이에 『內經』을 이해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類經』과 『類經』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臨床經驗과 基礎理論을 결합하여 저술된 『內經知要』를 비교·연구하는 방법도 『內經』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類經』과 『內經知要』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內經知要』에서 특별히 자신의 주장을 밝힌 부분에 대하여 『類經』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고, 『醫宗必讀·水火陰陽論』에서 주장한 陰陽思想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 II. 本 論

韓醫學에서는 自然哲學思想인 陰陽論을 토대로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42-280-2626, king@dju.ac.kr

1)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改訂版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6. p. 37.

인체의 生理·病理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診斷과 治療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반된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類經』과 『內經知要』에서의 陰陽部分은 陰陽論을 이용하여 인체에 內在된 原理와 내부와 외부사이에 발생하는 矛盾과 統一의 整體觀念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內經』의 原文에 대한 註釋에 대하여 알아보고, 李中樞의 水火陰陽論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註釋比較

[素問·陰陽應象論]에 曰 陰陽者是 天地之道也。

『內經知要』에서는 天地가 있는 연후에 陰陽이 있고 萬物이 있으며 生殺變化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陰陽이 天地의 陰陽과 상응한다고 하여 天人相應의 의미로 평가하면서 陰陽은 본래 道로 生하고 道는 陰陽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석하였다.

萬物之綱紀。變化之父母。生殺之本始。

陰陽이 生殺의 根本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類經』에서는 陽氣가 物生을 주로 주관하며 陰氣 또한 物生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나, 『內經知要』에서는 陽氣는 物生을 陰氣는 物死를 주관한다고 하여 약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神明之府也。治病은 必求于本<sup>아니라</sup>

『內經知要』에서는 근본을 구한다는 것은 陰陽을 말하는 것이니 陰陽을 잘 변별하면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虛實을 분명하게 파악하면 陰陽이 區別되어 오류가 없을 것이고, 證候가 의심스럽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果敢하게 判別하여 治療하지 못하면 實한 것을 더욱 實하게 하고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하는 禍를 自招하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故積陽爲天이오 積陰爲地이오 陰靜陽躁<sup>아니라</sup>

『類經』에서는 形氣의 生成이 쌓여야 두터워지므로 陽氣가 쌓여서 하늘이 되고 陰氣가 쌓여서 땅이

된다고 하였는데, 『內經知要』에서는 陽에 屬하는 것은 天에 根本하고, 陰에 屬하는 것은 地에 근본하는 것이라고 註釋하면서, 疾病을 치료하려면 마땅히 天地陰陽의 이치를 본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陽生陰長<sup>아니라</sup> 陽殺陰藏<sup>아니라</sup>

陰陽의 淑慝과 歲紀로 설명한 것으로 李中樞는 “萬物이 모두 陽으로부터 命을 받으며 陰은 다만 그를 위하여 순순히 따르는 자인 것이다. 陽氣가 生旺하면 陰血이 힘을 받아 長養하고 陽氣가 衰殺하면 陰血이 調和롭게 될 길이 없으니 이는 陰이 陽을 따르는 至極한 이치인 것이다.”라고 하여 陽氣가 爲主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陽化氣<sup>아니라</sup> 陰成形<sup>아니라</sup> 寒極生熱<sup>아니라</sup> 熱極生寒<sup>아니라</sup>

陰陽의 이치는 極에 달하면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 『類經』에서는 寒邪에 損傷되면 發熱하는 것은 根本은 寒인데 熱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여 인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內經知要』에서는 아주 추운 겨울에 陽氣가 始生하여 점차 따듯해지는 계절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寒氣生濁<sup>아니라</sup> 熱氣生清<sup>아니라</sup> 清氣在下則生飧泄<sup>아니라</sup> 濁氣在上則生脹<sup>아니라</sup>

清陽爲天이오 濁陰爲地<sup>아니라</sup> 地氣上爲雲이오 天氣下爲雨<sup>아니라</sup>

陰陽의 升降도 자연계와 사람에 있어서 같은 이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雲雨를 精氣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故로 清陽은 出上竅<sup>아니라</sup> 濁陰은 出下竅<sup>아니라</sup> 清陽은 發腠理<sup>아니라</sup> 濁陰은 走五臟<sup>아니라</sup> 清陽은 實四肢<sup>아니라</sup> 濁陰은 歸六腑<sup>아니라</sup>

陰陽의 作用을 『類經』에서는 陽은 發散하므로 清陽이 皮膚에 모이고 陰은 五臟으로 氣運을 받아 모인다고 하여 陰陽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說明하였고, 『內經知要』에서는 단순히 陰陽의 위치로 설명을 하여, 『內經』의 내용을 더욱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水爲陰<sup>이오</sup> 火爲陽<sup>이라</sup>

『類經』에서는 水火에 대한 설명을 周易의 坎離卦와 醫學의 心腎과 丹家의 精氣라고 認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內經知要』에서는 “水火를 말하여 氣味の 陰陽을 辨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水火는 서로 감추고 있으며 陰陽이 서로 形體를 바꾸는 것이니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陽爲氣<sup>오</sup> 陰爲味<sup>며</sup> 味歸形<sup>이오</sup> 形歸氣<sup>니라</sup> 氣歸精<sup>하고</sup> 精歸化<sup>하니라</sup> 精食氣<sup>하고</sup> 形食味<sup>하니라</sup> 化生精<sup>하고</sup> 氣生形<sup>하니라</sup> 味傷形<sup>하고</sup> 氣傷精<sup>하니라</sup> 精化爲氣<sup>하고</sup> 氣傷于味<sup>하니라</sup> 陰味出下竅<sup>하고</sup> 陽氣出上竅<sup>하니라</sup> 味厚者爲陰<sup>이오</sup> 薄爲陰之陽<sup>이며</sup> 氣厚者爲陽<sup>이오</sup> 薄爲陽之陰<sup>이라</sup> 味厚則泄<sup>하고</sup> 薄則通<sup>하며</sup> 氣薄則發泄<sup>하고</sup> 厚則發熱<sup>하니라</sup>

壯火之氣衰<sup>하고</sup> 少火之氣壯<sup>이라</sup> 壯火食氣<sup>하고</sup> 氣食少火<sup>하며</sup> 壯火散氣<sup>하고</sup> 少火生氣<sup>하니라</sup>

이 부분은 만물의 根源이 陽氣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반대로 쇠퇴하게 되고 적당하면 왕성하게 된다는 것으로 化育하는 것은 적으면 왕성하고 旺盛하면 衰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內經知要』에서는 陽氣가 三焦를 運行하여 五穀을 腐熟하는 것이 眞火의 功이라는 것을 『內經』에서 계속 강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 火를 잘 기르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陰勝則陽病<sup>이오</sup> 陽勝則陰病<sup>이라</sup> 陽勝則熱<sup>이오</sup> 陰勝則寒<sup>이라</sup> 重寒則熱<sup>이오</sup> 重熱則寒<sup>이라</sup> 寒傷形<sup>하고</sup> 熱傷氣<sup>하니라</sup> 氣傷痛<sup>하고</sup> 形傷腫<sup>하니라</sup> 故先痛而後腫者<sup>는</sup> 氣傷形<sup>也</sup> 先腫而後痛者<sup>는</sup> 形傷氣<sup>也</sup>니라

喜怒傷氣<sup>하고</sup> 寒暑傷形<sup>하니라</sup>

喜怒는 七情진체를 말하는 것이고, 寒暑는 六氣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天不足西北<sup>하니</sup> 故西北方<sup>은</sup> 陰也 而人右耳目<sup>이</sup> 不如左明<sup>也</sup>라 地不滿東南<sup>하니</sup> 故東南方<sup>은</sup> 陽也 而人左手足<sup>이</sup> 不如右強<sup>也</sup>라

사람의 形體는 天地를 본 딴 것이므로 上下陰陽에 있어 不足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왼쪽 耳目이 더 밝은 것은 陽氣가 東南方이 왕성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오른쪽 手足이 강한 것은 陰氣가 西北方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陽之汗<sup>은</sup> 以天地之雨<sup>로</sup> 名<sup>之</sup>라

땀은 陽氣가 鼓動하여 體表로 排出되는 것이나 본래는 陰水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연계의 비는 하늘의 陽氣가 下降하여 내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汗은 陰液이 되지만 陽氣가 鼓動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氣는 陽에 속하지만 裏陰에서 發한다. 陽이 만약 偏勝하면 陰이 病을 받을 따름이다. 이는 天地의 陰陽이 사람의 陰陽에 습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陽之氣<sup>는</sup> 以天地之疾風<sup>으로</sup> 名<sup>之</sup>라

天地의 陰陽은 晝夜로 나누고 사람의 陰陽은 臟腑로 定한다. 天人은 본래 相應하므로 天體를 빌어서 人身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考察>

이 부분은 ‘人身小宇宙’라는 인식 아래 陰陽學說에 대해 概略적으로 說明한 部分이다. 그러므로 自然界에 存在하는 一切의 事物現象으로부터 陰陽의 本質과 變化를 설명하고 아울러 人體의 生理와 病理의 일반적인 情況도 설명하고 있다. 陰陽의 辨證方法을 운용하여 人體生理의 正常活動과 病理的인 反影을 이해할 수 있어서 治療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本節 중에서 비교적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陽爲氣<sup>오</sup> 陰爲味<sup>며</sup> 味歸形<sup>이오</sup> 形歸氣<sup>니라</sup> 氣歸精<sup>하고</sup> 精歸化<sup>하니라</sup> 精食氣<sup>하고</sup> 形食味<sup>하니라</sup> 化生精<sup>하고</sup> 氣生形<sup>하니라</sup> 味傷形<sup>하고</sup> 氣傷精<sup>하니라</sup> 精化爲氣<sup>하고</sup> 氣傷于味<sup>하니라</sup>”라는 열네 구절로 張介賓은 飲食과 藥物의 氣味로 陰陽을 말한 것으로 五味가 精血을 만들어 형체를 이루고 형체가 氣에 歸屬되고 氣는 精에 歸屬된다는 것과 그에 따른 病理的인 상황을 언급하여 註釋을 달았다.

이것은 陽인 無形의 氣와 陰인 有形의 質을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을 들어서 說明한 것으로 飲食의 변화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圖式化할 수 있다.

(正常) 味 → (歸) → 形 → (歸) → 氣 → (歸) → 精  
 → (歸) → 化  
 (交換) 味 ← (食) ← 形 氣 ← (食) ← 精  
 (循環) 形 ← (生) ← 氣 ← (化) ← 精 ← (生) ← 化  
 (病態) 味 → (傷) → 形 氣 → (傷) → 精  
 味 → → (傷) → → 氣

옛날 사람들은 飲食物이 人體의 精氣神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化는 변화하기를 잘하는 神의 動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形歸氣’아래의 氣는 또한 ‘陽爲氣’의 氣字와는 다른 개념으로 元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精氣神의 관계는 飲食物의 味로부터 形體가 충실해지면서 동시에 味로부터 氣가 생하고, 氣로부터 精이 생하며, 精으로부터 神이 생한다는 것인데, 인체의 營養分에 대한 需要가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형체만을 중시해서 보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도로 다른 측면에서는 飲食 자체로부터 分析할 수 있는데 飲食의 人體에 대한 作用은 味와 氣의 구분이 있다. 즉 “陰味出下竅하고 陽氣出上竅라 味厚者爲陰하고 薄爲陰之陽이오 氣厚者爲陽하고 薄爲陽之陰이라 味厚則泄하고 薄則通이오 氣薄則發泄하고 厚則發熱이라”는 내용이 구분이 된다. 이런 氣와 味의 구분과 뒤에 나타나는 藥物의 性質과 機能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一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氣’字와 위에서 말한 ‘氣’字의 의미는 다른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味’와 위에서 말하는 ‘陰爲味’의 ‘味’字도 廣義와 狹意의 구별이 있게 된다.

이상은 『內經』의 原文을 통하여 『內經』에서 陰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응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절대로 고정적으로 어떤 일개 사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나 현상들

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반드시 一切의 相對性原理를 감안하여 하나의 사물의 상황을 탐구해야 하고, 『內經』에서 활용된 陰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여야 비로소 조리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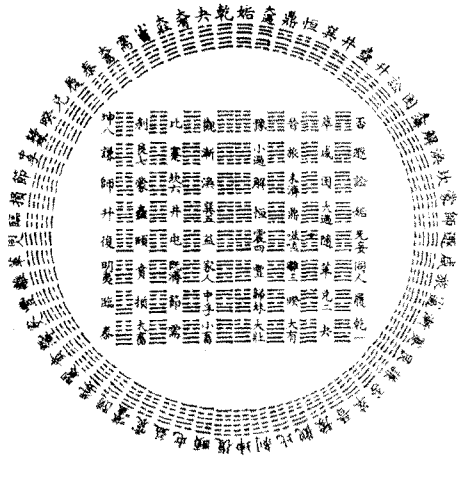
『素問·金匱真言論』에 曰 平旦至日中은 天之陽이니 陽中之陽也라 日中至黃昏은 天之陽이니 陽中之陰也라 合夜至鷄鳴은 天之陰이니 陰中之陰也라 鷄鳴至平旦은 天之陰이니 陰中之陽也라 夫言人之陰陽하면 則外爲陽 內爲陰이오 言人身之陰陽하면 則背爲陽 腹爲陰이오 言人身之臟腑中陰陽하면 則臟者爲陰 腑者爲陽이오 肝心脾肺腎五臟은 皆爲陰이오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 六腑은 皆爲陽이라 故背爲陽이로라 陽中之陽은 心也오 背爲陽이로라 陽中之陰은 肺也오 腹爲陰이로라 陰中之陰은 腎也오 腹爲陰이로라 陰中之陽은 肝也오 腹爲陰이로라 陰中之至陰은 脾也라

子午卯酉의 四正에 따라 하루 및 일년을 陰陽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사람의 臟腑도 陰陽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腹部와 背部의 陰陽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老子의 “腹爲陽 背爲陰”은 天象을 말한 것이고 『內經』의 “背爲陽 腹爲陰”은 地象을 말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 臟腑의 形體는 본래 地象이므로 『內經』의 說을 따라 五臟을 다시 陰陽으로 구분하여 陽中之陽은 心, 陽中之陰은 肺, 陰中之陰은 腎, 陰中之陽은 肝, 陰中之至陰은 脾가 된다고 하였다.

<考察>

이상은 陰陽이 다시 나누어져 陰中之陰陽과 陽中之陰陽으로 되는 陰陽의 分容性을 설명하면서 이를 하루의 밤낮의 변화와 臟腑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五臟을 陰陽으로 나누는 것은 現代生理學的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韓醫學 臨床에서는 많은 효용성이 있으니 첫째는 內臟機能의 전체적인 象徴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心臟은 陽이 그 주된 기능적인 특징이 되는데 心陽이 過甚하면 心悸亢進의 현상을 일으키고, 반대로 心陽이 不足하면 心不全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整體療法 중에 일종의 區分法이 되는데, 예를 들면 心

肺는 함께 陽臟에 속하므로 心臟의 熱은 肺에 영향을 줄 수 있고, 肺熱證이 있을 때에도 清心하는 藥物을 함께 사용하여 熱을 내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세번째는 用藥에 있어서 心은 陽中之陽이므로 大苦 大寒한 藥을 써서 清火할 수 있고, 肺는 陽中之陰이므로 陰分을 고려하여 치료해야 한다. 즉 養陰生津하는 藥物로 退熱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 이런 종류의 방법들은 비록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의학이 이런 陰陽學說을 어떻게 운용하여 內臟의 生理機能의 概況을 調整하는가를 살피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1] 六十四卦方圓二圖

圓圖象天乾居東南坤居西北  
方圖象地乾居西北坤居東南

[原文] 生氣通天論에 曰 陽氣者 若天與日이니 失其所 則折壽而不彰하니 故天運은 當以日光明이라

사람에게 陽氣가 없으면 살수 없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밝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면서 陽氣는 사람의 衛氣로 陽인 衛氣는 체표를 보호하고 陰은 체내를 지키므로 陰陽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건강한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주석의 내용은 太陽이 午의 위치에 있으면 낮이 되고 子의 위치에 있으면 밤이 되는 것처럼 자연계의 順行은 太陽에 根本하는 것이다. 사람에 있어 陽氣가

없으면 分別淸濁하고 輸布三焦하며 呼吸運行하며 飲食物의 消化吸收하는 기능들이 마비되므로, 陽氣는 자연계의 太陽처럼 人體活動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壽를 누리려면 陽氣를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凡陰陽之要是 陽密乃固라 兩者不和하면 若春無秋로 若冬無夏니 因而和之가 是爲聖度니라

陰陽이 不和하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고, 和하게 한다는 것은 不足한 것을 補充하고 太過한 것을 瀉下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으로 聖人의 法度라고 하였다.

故陽強不能密하면 陰氣乃絶이라

陽氣가 너무 亢盛하면 陰氣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어 煎厥이 되어 陰氣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여 실제로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症狀을 언급하여 『內經』의 理論을 臨床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陰平陽秘하면 精神乃治니라

陰氣는 養精하고 陽氣는 養神하여 精神이 充足해 지므로 완전한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考察>

사람의 陽氣는 가장 根本이 되는 것으로 陽氣를 비밀스럽게 지키고 陰氣를 盛平하게 하여야 정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陰陽의 성질로 보면 陽氣는 활동하게 하고 陰氣는 잘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陰陽의 內面的側面을 강조한 矛盾과 統一의 단계로 陰平陽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陰陽은 이러한 끊임없는 矛盾과 統一의 과정에서 항상 均衡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의 陰陽學說은 실제로는 어느 특정한 단계에서의 固定的인 平衡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均衡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므로 持續的이고 有機的인 矛盾과 統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素問·五常政大論]에 曰 陰精所奉하면其人壽하고 陽精所降하면其人夭니라

陰精이 받드는 바는 陽氣가 堅固하므로 崇高한 곳을 말하는 것이고, 陽精이 내리는 바는 陽氣가 쉽게 배설되므로 汚下한 곳을 말한다는 張景岳의 말을 인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醫學經典들의 내용은 모두 陰陽의 範疇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몸의 臟腑·腹背·上下·表裏와 脈의 左右·尺寸·浮沈·遲數과 時令의 春夏秋冬과 歲運의 南政·北政에 왕성한 것이니, 陰陽의 微妙한 것을 살펴서 그 虛實을 조화롭게 한다면 만병의 근본을 모두 掌握할 수 있고, 萬卷의 부유함도 단지 의사의 마음속에 있으니 잘 요약되어 있으면서도 根據로 삼을 만한 것이라고 李中梓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註釋의 내용은 陰陽의 이치가 자연계의 方位에도 나타나니 東南方은 陽方이므로 그 精이 降下하므로 일찍 죽는 자들이 많고 西北方은 陰方이므로 그 精이 위로 향하므로 長壽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고,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또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예로 血은 陰이고 비록 肝臟에서 저장하지만 실제로 腎經 眞水の 所屬이다. 水氣가 旺盛하면 陰精이 가득 차서 위를 받들게 될 것이므로 가히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補腎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氣는 陽에 屬하고 비록 肺가 主하지만 실제로는 脾土의 음식이 化한 바이다. 土氣가 衰하면 陽精이 敗하여 下陷하게 되므로 마땅히 夭折하게 되니 補脾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薛立齋이다. 그는 六味地黃丸으로 壯水하여 奉上的 계획을 삼고, 補中益氣湯으로 土氣를 잡아서 降下의 방지를 삼는 治法을 많이 사용하니, 대개 升降의 미묘한 이치를 洞察한 것이고 조화의 뜻을 깊이 通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考察>

이 부분은 陰精이 充實하게 되면 長壽하고 陽精이 부족하게 되면 夭折한다고 하여, 陰陽의 相反과 相成을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陰陽의 精氣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으며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陰陽에 대한 내용은 크게 ‘天地之道’와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일체 사물의 변화를 귀납시켜 해석할 수 있는데 氣味, 火, 晝夜, 形體, 藏府 등으로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 이는 陰陽이 비록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지만 모든 사물과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 제시하는 예를 보아도 陰陽은 모든 대립적인 사물의 대명사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陰과 陽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陰陽의 相互影響을 파악하고, 相互制約, 相互依存의 관계를 인식하여 整體觀念에 따라 平衡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陰陽學說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고 그 원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古人들이 一切의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모두 相互對立의인 측면에서 출발하였는데, 內가 있다면 반드시 外가 있고, 上이 있으면 반드시 下가 있는 것과 같다. 醫學으로 應用하면 寒이 있으면 熱이 있고, 虛가 있으면 實이 있으며, 形체가 있으면 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즉 古人들이 자신의 學說을 피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陰陽의 개념이 바탕을 이룬 상태에서 그 과정을 이루어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水火陰陽論에 대하여

### 1) 水火陰陽의 相交는 萬物造化의 根本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陽이 “萬物之綱紀요 變化之父母요 生殺之本始라”하였고 水火는 바로 陰陽의 徵兆라고 말하고 있다. 李中梓는 이와 같은 理論에 대하여 보다 깊이 깨닫게 되어 陰陽이 既濟하고 水火가 相交하는 것이 바로 天地가 萬物을 造化하는 근본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醫宗必讀·水火陰陽論』에서 “天地造化之機는 水火而已矣라 宜平不宜偏하고 宜交不宜分이라 …… 交則爲既濟요 不交則未濟니 交者生之象이오 不交者

死之象이라”고 하였다. 즉 陰陽二氣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자연계의 만물이 化生하고 發展하며 變化하게 되고, 水火는 陰陽의 속성이 가장 뚜렷한 두 방면으로서 水性은 潤下하고 火性은 炎上하여 水火가 相交하는 것은 곧 陰陽이 相濟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水가 上昇하는 것은 火氣의 蒸騰作用에 의지해야 하고, 火가 下降하는 것 또한 水의 潤澤作用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水火가 不交하면 陰陽이 互濟할 수가 없어 火가 偏盛하게 되거나 水가 偏盛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만물이 심각한 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 2) 水火陰陽의 相交는 人體生命의 根本이다

李中梓는 水火陰陽의 相交가 人體生命의 근본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여 『醫宗必讀·水火陰陽論』에서 “人身之水火는 卽陰陽也 卽氣血也라 無陽則陰無以生하고 無陰則陽無以化라”고 하였다. 이는 眞水와 眞火가 臟腑陰陽의 근본이 되는데 腎水는 先天의 근본이 되고 腎火는 人體生命의 동력이자 원천이 되므로 腎水와 腎火가 相濟해야 비로소 生命이 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水火陰精과 陽氣가 相互 資生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음식의 氣는 無形으로 陽에 속하고 昇을 主하며, 음식의 味는 質이 있어 陰에 속하고 降을 主한다. 飲食五味가 入口하여 血液을 化生하고 形체를 充養하는데 血液은 다시 陽氣에 의하여 陰精을 化生하게 됨으로써 陰陽氣血이 相濟하고 生理機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여 『內經知要·陰陽』에서 “味歸形者는 五味入口할새 生血成形이오 形歸氣者는 血皆依賴於氣하니 氣旺則自然生血하고 氣傷而血因以敗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臟腑機能의 협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水火陰陽의 相交가 正常機能을 維持하는 關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心은 主火하고 陽에 屬하며 上焦에 있으며 腎은 主水하고 陰에 屬하며 下焦에 있는데, 心火는 腎水를 溫하게 하고 腎水 또한 心火를 養하게 하여 ‘心腎相交’의 協調關係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腎陰이 不足하여 心火가 獨亢하게 되면 腎에

로 下交할 수가 없게 되면서 心腎의 水火陰陽이 相濟의 關係를 喪失함으로써 ‘心腎不交’의 病理變化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李中梓는 『內經知要·陰陽』에서 “水火互藏은 陰陽交體니 此不可不知也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人體의 生命을 유지함에 있어서 근본 素因이 되는 것이 바로 水火陰陽의 相交와 既濟에 달려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 3) 水火陰陽의 相交에서 陽氣가 主導가 된다

李中梓는 水火가 相交하고 陰陽이 相互 生化하는 과정에 있어서 陽氣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여 『醫宗必讀·水火陰陽論』에서 “物不生於陰 而生於陽하니 譬如春夏生而秋冬殺也라 又如向日之草木易榮하고 潛陰之花卉善萎也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醫宗必讀·水火陰陽論』에서 “氣血俱要 而補氣在補血之先하니 陰陽并需 而養陽在滋陰之上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元氣不足한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보통 甘溫의 藥劑로 溫陽補虛하여 元氣가 회복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血虛의 병증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補血藥 속에 益氣藥을 배합함으로써 ‘氣能生血’의 功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醫宗必讀·藥性合四時論』에서 “夫元氣不足者는 須以甘溫之劑補之하니 如陽春一至하면 生機勃勃也오 元氣不足而至於過極者는 所謂大虛必挾寒하니 須以辛熱之劑補之니 如時際炎蒸하야 生氣暢遂也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李中梓가 辨證論治함에 있어서 陽氣를 助補하는 것을 重히 여기고 藥物使用도 溫補하는 것에 偏重하고 寒涼克伐의 藥을 삼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藥性を 論함에 있어서도 藥物이 陽氣를 生發하는 역할을 重히 여겼는데 그는 溫熱之品은 모두 補虛하는 효과가 있고 寒涼之品은 모두 瀉實하는 효과가 있으니 藥을 쓸 때에는 溫熱의 藥으로 陽을 扶助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한다고 주장하여 『醫宗必讀·藥性合四時論』에서 “藥性之溫者는 于時爲春이니 所以生萬物者也오 藥性之熱者는 于時爲夏니 所以長萬物者也오 藥性之涼者는 于時爲秋니 所以肅萬物者也오 藥性之寒者는 于時爲冬이니 所以殺萬物者也라 故凡溫熱之劑는 均爲補虛하고 寒涼之劑

는 均爲瀉實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총괄하여 보면 李中梓의 水火陰陽은 陽氣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서로 순환되는 것이 인체의 생명의 근본이 되며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5.

4. 張景岳.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III. 結 論

1. 『內經』에서는 ‘人身小宇宙’라는 思想을 基礎로, 陰陽의 要點은 ‘天地之道’와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라고 認識하였으며 相互影響·相互制約·相互依存의 關係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自然界의 事物現象으로부터 陰陽의 本質과 變化와 人體의 生理·病理 등 일반적인 情況을 說明하였다.
2. 李中梓의 『內經』에 대한 註釋은 張景岳보다 단 순하게 하여 후세 사람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게 하였으며, 臨床에서 活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부분이 많이 있다.
3. 水火陰陽은 陽氣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서로 순환되는 것이 인체의 생명의 근본이 되며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단행본>

1.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改訂版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6.
2. 李中梓. 李中梓醫學全書-內經知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